

제10회 한·일 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 개최사·인사말·축사

개회사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오늘 제10회 한·일 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위하여 일본에서 오신 전국어항어장협회 다나가 준치 회장님을 비롯한 일본대표단 여러분, 또한 바쁘신 국정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어촌어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일 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는 1997년에 시작,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어 올해로 10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는 어촌어항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교류, 그리고 관계자들의

우의를 다지면서, 회를 거듭 할수록 회의의 수준과 질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산업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양국 협회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성심성의껏 노력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산업이 단순히 생산만의 개념에서 벗어나 물과 관련된 모든 산업, 즉 수계(水界)산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안의 바다를 선점적으로 이용해 오던 어업인들이 깨끗한 어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어촌과 어항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회의에서는 연안역의 개발을 위한 기술과 정보교류는 물론 양국의 수산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인사말



타나카 준치(田中 潤兒)
일본전국어항어장협회
회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어항어장협회 회장 다나가 준치입니다.

제10회 한·일 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를 서울 및 통영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회의를 준비하고 저희들 일행을 따뜻하고 성대하게 환영해 주신 한국어촌어항협회 배평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과 한국의 두 협회는, 1988년 교류가 시작된 이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각국의 어업, 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술 교류회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논문 발표, 현지 조사 등을 통

해서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국은 세계 유수의 어업국이며, 양국의 수산업은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연안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의 진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 기반인 어촌·어항·어장의 정비에 관한 양국의 기술 교류가 활발한 것은 지극히 가치있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양국의 수산업은 환경의 악화로 인한 어업 생산의 감소, 어업자의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수계산업이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양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축사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서재연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과장 대독)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 다나가 준치 회장님, 한국어촌어항협회 배평암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일 양국 어촌어항 관계자 여러분!

먼저 오늘 뜻깊은 제10회 한·일 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술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수산기반 구축에 힘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인 유사성으로 주요 수산여건이 비슷하여, 더욱 더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업인들의 삶의 근간이자 수산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어촌·어항·어장에 관한 민간 단체 간의 교류는 양국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우리 어촌과 수산업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어촌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어항 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어업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어항에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관광·레저기능을 갖추는 등 어항을 다기능항으로 개발함으로써 어촌관광의 활성화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력과 생동감 넘치는 추진력을 결집하여 올 한해가 한·일 어촌어항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